

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

(95.8.22.~9.19.)

일자	내 용
8.26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증권감독원, 기업 합병에 관한 규정 개정, 96년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상장 기업과 주식 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장 기업의 합병 불허 방침
8.27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교육부, 96년부터 담배에 교육세 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담배에 소비세와 별도로 100 원씩 교육세 부과 (교육 재정의 규모 : GNP의 5%로 확충)
8.28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건설교통부,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 지침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8월부터 탄력세율 인상(170%에서 → 195%) ▶ 이에 따라 전용 면적 25.7 평은 3.4% 인상, 15.7 평은 8.9% 인상 효과 ◎ 증권감독원, 기업공시제 대폭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 내부 정부 공시 기간 단축(2~3 일 이내 → 24 시간 이내)
8.29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통상산업부, 자동차 산업 장기 발전안 및 전략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05년 자동차 생산량을 年産 400만 대로 육성, 세계 4~5위권 진입 목표 ▶ 연간 설비 투자 2.6조 원, 연구 개발 투자 1.6조 원 등을 투자하도록 독려 ◎ 민자당 · 기협중앙회, 중소기업 여신 금지 업종 전체 재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비성 서비스업종 대출 제한 전체로 제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검토 ▶ 사양 업종의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시 사업 전환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방안 검토
8.3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통상산업부, 30대 기업 소속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외형적으로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30대 대기업 집단에 속한 중소기업(지분율 50% 이상 중소기업)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세제 · 금융 지원 제외
9. 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재정경제원, 95 세법 개정안 확정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근로자 세부담이 96년부터 20~30% 가량 축소 ▶ 상속 · 증여 · 양도세의 최고 세율을 10~15% 인하
9. 4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재정경제원, 은행 합병에 세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은행 등 금융 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감면 ▶ 흡수 합병을 통한 금융 기관의 대형화 추진을 위해 조세 감면 규정 개정 ◎ 재정경제원, 관세법 개정안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96년 하반기 이후 수출입면허제를 허가제로 전환, 통관 기간 단축(15일→2~3일)
9. 6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재정경제원,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 수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CD, CP, 등 만기전 양도 가능한 모든 채권의 이자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

일자	내 용
9. 7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정보통신부, 신규 통신 사업자 선정 연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제 전화 등 7 개 통신 사업 분야에서 30 개 이상 신규 사업자의 연내 선정 계획을 96년 4~5월로 연기
9.1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정보통신부, 초고속 시스템의 국산 기반 강화 지원 계획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0년까지 2조 원 투입하여 초고속 통신 시스템을 집중 개발 ▶ 시스템의 국산 공급 비율을 65% 수준으로 향상
9.1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통상산업부,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 창고 건립 자금 대출 ▶ 소비자 기호에 맞는 현대적인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점포 표준화 작업 지원
9.12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정부·민자당, 96년 예산안 63조 원으로 확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95년보다 14.9% 증가(일반 회계 58조 원, 재정 투·융자 특별 회계 5조 원) ▶ 한국통신(株) 매각 연기(96년중)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추경 예산 편성 ◎ 건설교통부, 수도권 4 개 신도시 건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도권을 서울 중심의 단핵 구조에서 탈피, 외곽 분산형 다핵 구조로 전환 ▶ 서울에서 40~50 km 떨어진 지역에 자족 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 신도시 건설
9.13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정부·민자당, 세법 개정안 보안 방안 논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법인세율을 2%포인트 인하(1억 초과 30%→28%, 1억 이하 18%→16%) ▶ 1 가구 1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로 완화 ◎ 신경제추진회의, 중소기업 구조 개선 대책·산업 인력 공급 촉진 대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2 배(8,000억 원) 인상 ▶ 산업 인력의 공급 원활화를 위해 근로자과건제와 시간근무제 도입
9.14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국세청, 경영 애로 기업의 세무 조사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소기업자 및 34~50만 개의 경영 애로 기업체의 세무 조사를 2년간 면제
9.15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재정경제원·총무처, 공무원 봉급 9%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96년도 공무원 봉급을 95년 대비 총액 기준으로 9.0% 인상 ◎ 건설교통부, 건설·교통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준도시 지역 내 농어촌 산업 지구 신설 ▶ 각종 공장 유통 단지 등 2·3차 산업 시설 유치 ◎ 경제장관회의, 특별소비세법·교통세법·교육세법 개정안 확정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3 개 품목 소비세율 인하, 유류 관련 교통세·특소세를 종량세로 전환
9.18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재정경제원, 국민 연금의 금융 자산 투자 규모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 연금의 주식·채권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 (95년 3,118억 원 → 96년 2조 4,011억 원)
9.19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건설교통부,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6 개월간 3 회 이상 토지 거래자(법인, 개인)의 국세청 통보